

2026 년 9 월 22 일

고려아연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열한 번째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9 월 9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는 저희가 지배구조 개선과 전략 사업 실행,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결과에 담긴 주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려아연(주)(이하 “고려아연”, “당사” 또는 “회사”)은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주 여러분의 신뢰는 실적과 책임 있는 경영, 그리고 경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장기 전략을 원칙에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Project Crucible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주주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 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강화된 이사회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한 124개 상장사 가운데 123개사가 주주 승인을 받아 해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고려아연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MBK 파트너스(이하 “MBK”)와 (주)영풍(이하 “영풍”)의 반대로 부결된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개정 상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상정된 세 개 안건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고, 이형규·서은숙·이준봉·심혜섭 독립이사 4명이 선임되었으며, 백인규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이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81.8%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어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백인규 이사는 단국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28 년간 근무하며 회계와 감사, 재무자문, 내부통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백 이사의 선임은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ISS 와 Glass Lewis 를 포함한 9 곳 중 8 곳이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당사는 백인규 이사의 경험이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 체계 전반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독립이사가 선임되면서 이사회 구성과 역량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형규 이사와 서은숙 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사입니다. 이형규 이사는 법률과 지배구조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준법·규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서은숙 이사는 금융과 공공 분야의 경력을 토대로 재무·투자·전략 관련 의사결정에 폭넓은 관점을 더할 것입니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독립이사들이 선임되면서 이사회가 보유한 전문성이 재무, M&A, 리스크 관리, 법률, 국제관계 등으로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이형규 이사와 서은숙 이사는 전략과 자본배분,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 신뢰를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 년 임시주주총회 결과]

#	안건명	제안자/추천인	회사의견	주총결과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고려아연	찬성	가결
2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 인 선임의 건 (유미개발(주), (유)와이피씨,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2-1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유미개발	찬성	가결
2-2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	유미개발	찬성	가결
2-3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	YPC/영풍/MBK	-	가결
2-4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	YPC/영풍/MBK	-	가결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¹⁾			
3-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	고려아연	찬성	가결
3-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	YPC/영풍/MBK	-	부결

1) '제 3-1 호', '제 3-2 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좋은 지배구조는 한 번의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감독 기능, 그리고 주주 권익을 꾸준히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수년간 이사회 주도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Board Skills Matrix)와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이사회 평가를 도입했으며, 주요 투자에 대한 이사회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소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으며,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주주 공개추천 제도를 도입해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를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Project Crucible이라는 이름에도 같은 뜻을 담았습니다. 도가니가 서로 다른 원소를 녹여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내듯,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토론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제도로 뒷받침해 온 결과, 당사는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수년간 국내외 주주와의 소통을 크게 확대해 최고경영진과 독립이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경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2년의 경영원칙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업의 안정을 지키고, 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며, 주주 여러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경영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연결 기준 매출 16조 6,000억 원, 영업이익 1조 2,3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2.5% 늘어난 약 12조 4,000억 원, 영업이익은 151.5% 증가한 약 1조 3,300억 원으로,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생산능력 증대, 귀금속·희소금속 사업 비중 확대, 그리고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 추진이라는 다년간 이어온 전략적 판단과 실행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106분기 연속, 4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역시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기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 년간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와 반도체, 방위산업,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가 글로벌 핵심광물 산업을 바꿔놓는 가운데, 미국 내 통합 제련소 건설 계획인 Project Crucible 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Project Crucible 은 고려아연이 50 여 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 기술과 운영 역량 위에,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결합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려아연을 전략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공급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간 핵심광물 협력의 폭을 넓히고, 양국이 마주한 경제·안보 과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Project Crucible 규모의 사업은 자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연속성과 일관된 의사결정,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익은 운영 노하우, 흔들리지 않는 재무 원칙, 그리고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로부터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가 함께 필요합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52 년에 걸쳐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실적과 조업으로 증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지난 2 년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대적 인수 시도가 시작된 이후, MBK 파트너스와 영풍으로부터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해외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지, Project Crucible 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어떤 역량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고자 한다면, 운영 역량과 전략의 명확성, 재무적 원칙, 그리고 실제로 가치를 창출해낸 기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 년간 저희는 불확실성 앞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안정적인 조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진전, 주주환원의 확대, 그리고 Project Crucible 의 실질적인 진척이 그 결과입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의 판단을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역량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이며,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실적과 원칙으로 답하겠습니다.

주기율표 룰렛 전략 - 핵심광물에서의 구조적 강점

지난 20 년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생산하는 금속과 소재 및 부산물은 12 종에서 현재 20 여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52 년간 이어온 일관된 선택의 결과이며,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제련 기업은 주력 금속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성분은 잔재나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많은 제련 기업이 외면한 폐기물에서 회수와 정제 가능성을 찾아 이를 제품화했으며, 주기율표 전반에서 가치를 확보하는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고유 기술과 오랜 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가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역량은 안정적인 실적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단일 금속에 의존하는 제련 기업의 실적은 해당 금속의 가격에 연동됩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20 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특정 금속의 가격 변동이 전사 실적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으며, 한 금속의 부진을 다른 품목의 호조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구성은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사이클 전 구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넓혀온 이유입니다.

실제로 매년 실적을 견인한 금속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안티모니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가격 상승이 추가 이익으로 이어졌고, 2026년 상반기에는 고도화된 정제 공정에서 회수한 은과 금이 사상 최대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아연과 구리, 황산, 반도체용 초고순도 황산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적을 이끄는 제품이 바뀌었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금속가격 하락이나 시장 사이클 둔화의 영향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시장 전반이 약세일 때는 고려아연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급 구조가 서로 다른 여러 금속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특정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서도 실적 하단을 비교적 두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전략은 다음에 상승할 제품을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룰렛이 어디에 멈출지를 예측하는 일은 저희가 하는 일과 다릅니다. 고려아연은 더 다양한 원소에서 가치를 회수할 기술력을 확보하여, 룰렛이 어디에 멈추더라도 그곳에서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해 왔습니다. 역량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장 환경이 바뀌어도 기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고객과 고객의 니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제품 포트폴리오를 현재 20 여 종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향후 5년간 30 여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고려아연이 확인하고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산업의 가치는 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와 잔재로 여겨지는 소재에는,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변화하면서 비로소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회수해 주주 여러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로 전환하는 일이 곧 고려아연의 사명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구조적 다각화, 기술 혁신, 그리고 전략의 꾸준한 보완. 고려아연은 이러한 방식으로 50 년 넘는 시간을 견뎌왔고 여러 시장 사이클을 통과해왔습니다. 다음 성장 국면에서도 주기율표 전반에 숨은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길: 주주의 신뢰를 장기 가치로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에는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며, 화답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는 원칙에 따른 실행과 지배구조 개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로 고려아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신뢰가 일관된 성과와 투명한 책임경영, 모든 주주를 위한 실천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 년간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 시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업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과 산업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장기 비전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려아연의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역사를 지탱해 온 엄격함과 원칙, 겸허함을 바탕으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Project Crucible 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심에 세우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의 토대가 될 사업입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맞물린 Project Crucible 은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며, 주주 여러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려아연주식회사

회장 최윤범

